

연천소방서 6월9일 개청식

경기도, 전 시군 소방서 건립 초읽기



연천소방서가 6월9일 개청하고 양주소방서가 이날 말에 개청을 앞두고 있어 도내 전 시군에 소방서 건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연천소방서가 6월9일 개청하고 양주소방서가 이날 말에 개청을 앞두고 있어 도내 전 시군에 소방서 건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2006년6월 민선 47인 김문수 도지사 취임 직후 전 시군에 소방서를 건립하겠다고 밝힌 지 2년여만에 이룬 쾌거다.

김 지사는 그동안 각종 재난 재해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행정서비스는 바로 '도민의 안전'임을 누구도 강조하지 않았고 급기야 취임 직후부터 모든 시군에 소방서를 건립하겠다고 공언했다.

부용천에서 환경정화 활동 펼쳐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원장 유재삼)은 6월4일 제147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인근 부용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가두 캠페인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직원들과 함께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안전문화정착과 안전의식제고를 위한 이날 캠페인 및 환경정화활동을 통해서 깨끗한 하천을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안전공단이 지역주민과 함께 합은 물론, 재해예방 친화환경을 조성하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북부지도원은 이날 캠페인을 시작으로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및 보궐선거 등으로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산업재해 특히 3대 다발재해(협착, 전도, 추락재해)감소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북부지도원 유재삼 원장은 "근로자와 시민들에게 친숙한 안전공단의 이미지를 심어줘서 사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고 밝혔다.

독거어르신 20여명 초청 저녁식사 대접

의정부시 녹양동 늘푸른적십자봉사회 봉사활동



의정부시 녹양동 늘푸른적십자봉사회는 독거어르신 20여명을 초청 저녁식사를 하는 등 지역 봉사활동에 앞장서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의정부시 녹양동 늘푸른적십자봉사회는 독거어르신 20여명을 초청 저녁식사를 하는 등 지역 봉사활동에 앞장서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5월28일에는 독거어르신 20여명을 초청 식사를 같이하며 사랑이 담긴 선물도 전달했으며, 매주 수요일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50여명의 아동들을 목욕시키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실시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선도 100명 양성

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역할 확대에 따른 수형 능력 배양과 과학적인 생산기술과 제 선도실현을 위해 지난 3일 선도 여성농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과정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와 천연 자외선 차단제 만들기 체험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조옥자 양주시 생활개선회장은 "지구온난화 등 환경 이슈가 크게 부각되는 시점에 체험 교육을 통해 가정에서부터 환경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며 "가족모두 참여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성농업인들이 농정의 변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친환경 농촌생활 문화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교육(장모교), 밭작기 관할 및 로켓원리 이해 및 과학실습 : 별자리지도 만들기, 에어로켓 만들기

"우렁이들이! 풍년농사를 부탁해"



연천군은 5월30일, 백학면 학곡리 884번지에서 한마을쌀작목반(대표 정현상), 연천군청, 농업군지부, 지역농협, 타지역 작목반 등 5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2,000㎡에 우렁이 14kg를 방사했다.

그동안 친환경농법은 주로 오리농법이었으나 최근의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로 우렁이 농법이 각광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정현상 대표는 "우렁이는 수면과 수면 아래 있는 잡초와 수초를 먹어 화학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청정한 쌀을 생산하게 하고 겨울에는 모두 추위 때문에 죽게 돼 일부에서 제기되는 환경 파괴 등의 우려는 없다"고 전하며 "우렁이들이! 풍년농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군에 따르면 "농산물 수입 개방 시대를 맞아 잠재된 농촌에 친환경 농업인 우렁이 농법의 쌀 생산단지를 조성, 안전하고 깨끗해 경쟁력을 갖춘 쌀을 생산해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천군은 5월30일, 백학면 학곡리 884번지에서 한마을쌀작목반(대표 정현상), 연천군청, 농업군지부, 지역농협, 타지역 작목반 등 5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2,000㎡에 우렁이 14kg를 방사했다.

그동안 친환경농법은 주로 오리농법이었으나 최근의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로 우렁이 농법이 각광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정현상 대표는 "우렁이는 수면과 수면 아래 있는 잡초와 수초를 먹어 화학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청정한 쌀을 생산하게 하고 겨울에는 모두 추위 때문에 죽게 돼 일부에서 제기되는 환경 파괴 등의 우려는 없다"고 전하며 "우렁이들이! 풍년농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군에 따르면 "농산물 수입 개방 시대를 맞아 잠재된 농촌에 친환경 농업인 우렁이 농법의 쌀 생산단지를 조성, 안전하고 깨끗해 경쟁력을 갖춘 쌀을 생산해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6.25 戰死者 유해발굴 영결식

제26사단 전몰장병 희생정신 기려



의정부보훈지청(지청장 선해국)은 6월5일 오후2시 제26사단 주관으로 26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열린 6.25전사자 유해 발굴 영결식에 참석하여 전몰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의정부보훈지청(지청장 선해국)은 6월5일 오후2시 제26사단 주관으로 26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열린 6.25전사자 유해 발굴 영결식에 참석하여 전몰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6.25전쟁 57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6.25 전사자 유해 2구를 발굴하여 영결식을 치른 후 백제화장장에서 화장 후 서울국립현충원에 임시 보관하였다가 추후 합동 봉안할 예정이다. 이날 영결식에는 선해국 의정부보훈지청장, 박남수 26사단장, 6.25참전유공자회 양주시지회장, 보훈단체 회원 및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전사자의 애국정신과 위훈을 기렸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 청사내 시군기 계양

경기도와 시·군간 상생협력 상징

31개 시·군이 경기도청에 함께 모였다. 경기도는 분청사 신관 앞과 제2청사 전면광장에 도내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시·군기 31개를 계양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경기도와 시·군간 화합과 소속감 고취를 위해 시·군 청사에 경기도기를 게양토록 추진해 왔으며, 이와 연계해 도청사내에도 시·군기를 상시 게양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청사 내 시·군기 계양을 '도와 시·군 간의 상생협력'의 상징'으로 삼고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상생·발전 관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31개 시·군이 경기도청에 함께 모였다. 경기도는 분청사 신관 앞과 제2청사 전면광장에 도내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시·군기 31개를 계양했다.

주차자동화 관제시스템 시범도입 운영

의정부시 6월부터 백석천 복개주차장에서

의정부시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편의와 운영체계 개선은 물론 향후 추진되는 유비쿼터스 정보화시대에 연동 운영이 가능한 주차자동화 관제 시스템을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인력에 의존해 운영되던 공용주차장의 주차자동화 관제시스템 도입은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투명한 주차장 운영과 주차편의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차장내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로 차량도난 및 파손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주차자동화 관제시스템은 시범 운영인 만큼 이용자들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주차관리원 1명을 우선 배치하여 운영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완전무인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주차자동화 관제시스템 도입은 향후 의정부시가 도입 운영할 예정

의정부시는 유비쿼터스 정보화시대에 연동 운영이 가능한 주차자동화 관제 시스템을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인력에 의존해 운영되던 공용주차장의 주차자동화 관제시스템 도입은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투명한 주차장 운영과 주차편의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차장내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로 차량도난 및 파손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주차자동화 관제시스템은 시범 운영인 만큼 이용자들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주차관리원 1명을 우선 배치하여 운영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완전무인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주차자동화 관제시스템 도입은 향후 의정부시가 도입 운영할 예정



의정부시는 유비쿼터스 정보화시대에 연동 운영이 가능한 주차자동화 관제 시스템을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인 ITS사업과 연동하여 실시간 주차장정보 제공 등 시민편의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호국선열 숭고한 희생정신 기려!

연천군, 제53회 현충일 추념 행사

연천군은 6월6일, 연천을 차탄리 소재 현충탑에서 유가족, 초청인사, 학생 등 8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현충일 추념 행사를 개최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자 6.25 전쟁 58주년이 되는 달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비는 추념행사를 거행했다.

또한, 의정부보훈지청과 경인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0회 경기도 학생 백일장 대회'에 관내 초·중·고등학생 200여 명이 참가하여 군민의 애국심을 함양하고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발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규배(사진) 연천군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순국선열과 호국용사는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몸을 바쳐 희생하셨음을 상기하고,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 각하면서 주위에 있는 보훈가족에게 감사드리며 진심어린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미래 과학 인재 양성위해 경기 과학멘토사업 양주 장흥 송암 천문대에서

양주시가 6월4일 회천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1월26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경기 과학멘토 사업을 송암천문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 과학멘토 사업은 경기도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과학적 탐구 능력과 창의력 개발, 과학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이공계 기피현상을 극복하고 미래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대상은 양주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을 2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게 되며 1기당 교육인원은 35명으로 1월 2회에 걸쳐 교육을 받으며 교육은 총 8기로 나누어 운영된다.

교육 운영은 1단계 천문대 시설 체험교육(장모교), 별자리 관할 및 로켓원리 이해 및 과학실습 : 별자리지도 만들기, 에어로켓 만들기



2단계 헬리콥터센터 체험(시뮬레이터를 이용 우주항공모험을 타고 태양과 목성관련 조사 및 실험을 하는 수행)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송암천문대가 보유 한 천문시설 인프라 및 천문학 분야의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과학멘토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 관내 초등학교 및 청소년에게 과학에 대한 동기부여 및 과학적 탐구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접경지역 지원 발전방안 세미나

행정안전부 주관, 3개 시도 접경지역 100여명 참석

연천군은 6월5일,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태 분석과 성과평가를 통해 향후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발전방안 세미나'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읍면에 소재한 다목적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접경지역 지원업무 담당공무원, 접경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접경지역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 대표 등 100여명이 함께 했고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모성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법령개정, 규제완화, 안정적인 추진기반 마련 대책, 접경지역의 특성상 및 환경적 가치 증대 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으며 대중정책대와 옥계리 특화마을을 견학했다.

김규배 연천군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이유로 부동의 되는 사례가 많고 각종 군사훈련으로 인한



연천군은 6월5일, 접경지역 지원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또한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해당 지역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도면상, 일률적으로 설정한 경우가 많다"며 "보호구역이 군사적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지정되는 이유라며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지난 50년 동안 인내하고 피해를 받은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면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위해

양주 초록지기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개관

양주시가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 온 양주 초록지기 정보마을(남면 황방리)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6월3일 일출면 양주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마을 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그동안 2억9천5백만원을 투입, 마을정보센터 및 마을대표홈페이지(chorok.invl.org)를 구축하고, 가구별 전산장비(PC35대) 보급과 마을 정보센터에 각종 교육용 장비 등을 설치하여 성공적인 정보화마을을 조성했다.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은 정보화 교육에 소외된 농어촌지역에 인터넷이 용환경을 조성하여 정보생활화 및

활용에 의한 소득 증대로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양주 초록지기마을 조성을 통하여 생태연못 등의 관광 자원과 두부만들기, 짬뽕 공예 등 각종 체험을 마을홈페이지와 연계하여 홍보하고, 우리밀, 친환경 쌀, 오색쌀장정 등 마을특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주민 소득증대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정보 생활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백학정보마을 농촌체험 인기!

국도의 최북단에서 즐기는 생태체험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에 위치한 연천 백학정보마을은 전국 제일 청정수인 임진강이 계곡을 굽이쳐 흐르고 비옥한 논지가 넓게 펼쳐지고 역사와 문화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천혜 자연이 풍부하여 공기 맑은 수도권 1일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다.

백학정보마을의 체험을 경험하자면 '자녀와 친구가 되는 즐거운 하루!'로 표현하고 싶다. 가족이 더욱 가까워지는 체험농장, 어린 시절 추억 속의 놀이와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께 편지가 보셔요, 오늘 하루는 자녀와 친구가 되어 보세요!

체험프로그램은 웰빙농장 체험, 백로군단단식 생태체험 등이 있으며, 특히 웰빙농장 체험프로그램으로 정원체험농장이 있는데, 특징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경관이 수려한 임진강을 건너, 국도의 최북단에서 즐기는 체험! ▶앗, 우렁이가 풀을 먹네! 콩, 깨, 밭밭체험에서 우렁이 농사 체험까지! ▶북한에서 내려온 물에 맨 처음 몸을 담그는 찜질함과 시원한 물놀이! ▶정적지역의 무공해 지역 쌀로 지은 밥과 떡거리! ▶놀이 후에 마을 컴퓨터로 할머니 할아버지께 편지 써요! ▶맘씨 좋은 농군인 정만종씨가 친절하게 안내 합니다. 백학정보마을 홈페이지 (http://baekhak.invl.org/)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